

# 트랜스휴먼의 정신업로딩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메를로-퐁티 이론을 중심으로

임 현 수\*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

## 목차

---

1. 들어가며
2. 정신과 신체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및 트랜스휴머니즘
3. 메를로-퐁티의 세계-로의-존재인 몸
4. 영화 속 트랜스휴먼 분석
5. 나가며

---

\* 교신저자; imheonsoo@naver.com

## 초록

이데아론을 펼치며 이성적 사고를 중시했던 플라톤을 위시해 이성 중심의 서구 철학의 전통은 데카르트를 비롯한 계몽주의 철학자들에 와서는 이성과 신체를 분리하여 별개로 인식하게 되었고 근대 과학기술 발달과 함께 이성 중심 사고 전통은 더욱 공고해지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대 과학기술에서도 우리의 자아를 규정하는 본질은 두뇌(정신, 이성)에 있다는 두뇌중심주의적 사고가 강하며 신체를 정신의 운용을 수행하는 도구적 개념으로 이해하여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상정하게 되었다. 급속하게 발전한 현대 과학기술을 배경으로 이러한 두뇌중심주의 사고는 정신업로딩 기술을 꿈꾸게 되었고 이러한 소망은 곧 실현가능한 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몸이 도구로 기능하는가? 메를로-퐁티는 우리 신체를 도구적 관점으로 보는 전통 서구 철학을 비판하며 우리 몸의 주체적 위상을 정립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신업로딩에 관한 두 편의 영화를 메를로-퐁티의 몸 철학으로 고찰하면서 몸이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

주제어

몸 현상학, 살 존재론, 포스트휴먼, 〈셀프/리스〉, 상호주체성

---

## 1. 들어가며

20세기의 매체 철학자이자 4차원의 디지털 혁명을 일찍이 예언했던 빌렘 플루서(Vilem Flusser)는 인류의 문화사를 추상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4차원의 시공간에서 시간을 생략하면 3차원의 '입체'가, 입체에서 다시 깊이를 생략하면 2차원의 '평면'이, 여기에서 평면을 생략하면 1차원의 선이, 이 선으로부터 광선을 생략하고 나면 0차원의 '점'이 남는다. 달리 표현하면 각각 입체에서 그림으로, 그림에서 문자(숫자)로, 그리고 문자(숫자)에서 컴퓨터화된 점(유전자, 픽셀, 비트 등)으로 한 걸음씩 추상되며, 이러한 과정을 플루서는 "추상 게임"<sup>1</sup>이라 불렀다. 추상의 단계마다 "대변혁"<sup>2</sup>과도 같은 코드의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변화된 세계를 좀더 정확히 인식하려는 필요에 의해서였다. 17세기 이후 근대 과학 발전과 함께 분화한 "숫자사유"<sup>3</sup>는 선형적 텍스트의 세계를 추월하고, 20세기 후반 정보화 사회로 들어와서는 혁명적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온 디지털(점) 코드로 대 전환되었다. 플루서는 이러한 0차원 '점'들은 "정확히 말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잠재적으로는 모든 것이다. 그들은 가능성 들이다."<sup>4</sup>라고 이야기했다. 그의 말대로 0차원으로 추상된 가능성과 잠재태의 점들은 역으로 숫자세계의 구조를 수용하여 형상으로 종합될 수 있다. 그림에 대해 디지털 이미지가 그러하고, 컴퓨터는 알고리즘으로부터 구체적 환경을 재조합해 낼 수 있으며 생물의 경우, 유전자를 다시 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낼 수도 있다. 20세기 이후 이러한 가능성<sup>5</sup>들은 점차 현실 속에

1 Vilem Flusser, 『피상성 예찬』, 김성재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p.2.

2 *Ibid.* p.64.

3 박상우, 「기술이미지, 디지털 사유, 디지털 패러다임: 빌렘 플루서의 미디어 철학을 중심으로」, 『미학』 87-1호, 2021, p.36.

4 Vilem Flusser, *op. cit.*, p.12.

5 이러한 잠재태의 가능성을 설파했다고 해서 단순히 빌렘 플루서를 트랜스휴머니스트로 분류하기는 어려운데, 플루서는 생의 후반부에 『사물과 비사물』, 『몸짓들』과 같은 저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상학적 관점에서 인간 탐구를 시도했었고, 과학기술의 무분별한 수용을 거부(Vilem Flusser, 『사진의 철학을 위하여』, 윤종석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서 구체화 되고 있으며 이제 과학기술을 통한 인간의 삶의 질 개선을 넘어 인간 능력 향상, 그리고 인간 능력을 초월하는 트랜스 휴먼으로, 곧 생명을 주관하는 신의 역할까지도 설계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의 흐름으로 귀결되고 있다. 현재 인간의 질병 극복과 영생의 가능성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인공장기, 로봇공학, 인공지능, 나노기술 연구 등은 이미 긍정적 결과를 속속 도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술 발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지 예상하기 힘들 정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간에 대한 과학적 연구 중에서 뇌과학에 국한해 기술 개발 상황을 확인하고 이 기술 개발에 내포된 심신이원론적 사유가 계몽주의에서 비롯되어 트랜스휴머니즘으로 계승,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목할 만한 과학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심신이원론적 사유가 과연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는 관점인지 그래서 이원론적 관점에서의 연구 방향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메를로-퐁티의 몸 철학의 관점에서 심신이원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정신업로딩 기술에서 “잉여적이고 부차적인 것으로”<sup>6</sup> 간과되는 인간의 몸이 말 그대로 이성적 주체가 작동할 수 있는 수단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지, 혹시 인간의 실존을 증명하는 장소가 될 수는 없는지를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장 들어가며(서문)에 이어 2장에서는 정신과 신체에 관한 선행연구를 알아보고 트랜스휴머니즘의 흐름과 철학적 바탕이 되는 근대 계몽주의 철학과의 관련성, 그리고 그 비판적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다. 3장에서는 메를로-퐁티의 몸 철학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4장에서는 정신업로딩 기술을 다룬 영화 <셀프/리스> 와 <더 나은 선택>을 통해 인간이 처하게 될 구체적 상황 속에서 심신이원론적 사유와 몸-주체 사상이 어떻게 영화의 상상력 속에 녹아있

p.94-95.)하기도 했으며, 물리학적 물질의 불연속성, 잠재성을 환기시키고, '디지털 가상'에서는 실제와 가상의 경계지음이 무의미함(Vilem Flusser, *op.cit.*, p.6,12,300.)을 역설한 점 등에서 탈이원론적이고 탈역사적인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포스트휴머니즘적 사고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플루서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sup>6</sup> 천현순, 「새로운 몸, 이식된 정신 - SF 영화에 재현된 정신전송과 자아동일성 문제」, 『독어독문학』 160호, 2021, p.222.

는지를 살펴보고 메를로-퐁티 이론을 토대로 심신이원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5장에서는 앞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신업로딩에 내재된 심신이원론적 관점에서 분리된 정신(기억, 자아)은 적어도 현생인류와의 자아동일성을 충족하기에는 불안전하며 간과되어 온 몸을 실존을 증명하는 장소로서 규정하겠다. 본 논문에서 영화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정신업로딩이 아직 완전히 구현된 기술이 아니므로 상상의 트랜스휴먼을 예로써 살펴볼 수밖에 없고 둘째는 메를로-퐁티의 이론이 객관적 존재의 본질보다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의 현존을 중시하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이 발생하는 영화 속 주인공들의 일상을 살펴보는 것이 설명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이다. 마지막으로 그 시대의 대중예술에 재현된 인간의 모습과 문화적 현상은 곧 우리 시대의 기표로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21세기 현재 대중매체에 등장한 미래의 인간, 트랜스휴먼의 모습은 곧 현재 시점에서의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사고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TV나 영화, 소설 등 미디어에 그려지는 트랜스휴먼의 재현 모습을 살펴보면 몇 가지 종류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인공복제 인간(네버 랫미 고)과 인공복제로 만들어진 유기체적 몸에 정신업로딩으로 완성된 휴먼(블레이드 러너 2049), 현생인류의 몸에 정신업로딩 또는 인공지능이 결합한 휴먼(얼터드 카본), 또는 생물학적 몸이 없이 오직 인공지능만 존재(그녀)하거나 기계적 몸에 인공지능이 결합한 형태의 휴먼(엑스 마키나) 등으로 나뉜다. 그러나 이들 여러 형태의 트랜스휴먼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본전제는 이들에게서 중요한 부분은 몸이 아니라 정신(자아, 의식, 기억)이며 정신은 뇌의 특정 부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술이 바로 정신업로딩이라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트랜스휴먼은 이 기술을 통해 인간의 신체적 유한성을 극복한 존재로 그려진다. 이렇듯 정신이 신체에 비해 우위에 있고 극적으로는 유한한 신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신만을 따로 추출하여 새로운 신체에 여러 번 재투입할 수 있다는 상상은 현재 시점에서 트랜스휴머니스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일반적인 관점임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신 우위의 관점이 과연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며 정신업로딩이 예상하는 대로 인간 향상을 위해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는 기술이 될지를 고찰하려 한다. 이러한 논의는 조광제의 말처럼 “기존의 지성주의적 인간 이해가 얼마나 왜곡된 것인가, 그리고 실존론적인 인간 이해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sup>7</sup>으로 과학기술적 성과들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닌 인간 이해의 인문학적, 나아가 과학기술적 탐구 방향성에 대한 제안임을 밝힌다.

## 2. 정신과 신체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및 트랜스휴머니즘

### 1) 정신과 신체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논의에 앞서 본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룰 트랜스휴먼과 정신업로딩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자. 현재 SF 영화 등에 등장하는 미래의 인간은 트랜스휴먼 혹은 포스트휴먼이라 불린다. 둘의 차이는 트랜스휴머니스트에 의하면 트랜스휴먼(Transhuman)은 “호모 사피엔스로서의 현 인류에게 주어진 생물학적 조건과 그것에 기반을 둔 삶의 경계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존재이지만 여전히 휴머니즘적 이상과 가치를 지향하는 존재”<sup>8</sup>이고 포스트휴먼은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더욱 더 진화하여 “더 이상 정확히 인간으로 기술될 수 없는”<sup>9</sup> 현생인류와는 완전히 다른 인간을 말한다. 포스트휴먼에 대해서는 포스트휴머니즘에서는 정의를 달리하고 있는데 “인간 개념에 대한 역사적이고 물질적인 해체의 결

7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대한 강해』, 이학사, 2004, p.217.

8 이영의, 「포스트휴먼 시대의 신인류와 초인」, 『철학사상문화』 43호, 2023, p.209.

9 Francesca Ferrando, 『철학적 포스트휴머니즘』, 이지선 옮김, 아카넷, 2021, p.67-68.

과를 완전히 받아들임으로써”<sup>10</sup> 이미 인간은 포스트휴먼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에서의 정의가 사뭇 달라 이로 인한 혼동을 피하고 아직 현생인류와 완전히 다른 인간은 구현되지 않았기에 본 논문에서는 현 인류의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만들어지는 인간을 트랜스휴먼이라고 정의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트랜스휴먼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서 정신업로딩을 설명할텐데, 정신업로딩(mind uploading)은 정신전송(mind transfer)또는 마인드업로딩(mind uploading)이라 하며 현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정신(기억, 마음, 자아)을 컴퓨터나 다른 사람의 몸으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여러 장소에 있는 복수의 매체로도 전송 가능하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신업로딩 후 원래의 몸은 폐기처분하고 복제나 컴퓨터가 아닌 현생인류의 몸으로 전송하는 경우로 특정해서 살펴보겠다.

그동안 SF 영화에 그려지는 트랜스휴먼에 적용된 기술과 철학적 배경을 조망하는 연구로는 천현순과 김태경, 신상규, 박상현, 조광제 등의 논문이 있다. 천현순<sup>11</sup>은 정신업로딩 기술과 전송 이후의 새 몸에서의 자아 동일성 문제를 역시 정신업로딩을 다룬 두 편의 영화를 배경으로 철학적 근간을 짚으며 서술하고 있으며, 김태경<sup>12</sup>은 심적상태를 두뇌가 수행하는 기능적 역할로 정의하는 ‘기능주의’와 정신작용을 일종의 계산작용, 즉 컴퓨터와 동일하다고 보는 ‘정신에 관한 계산이론’(CTM)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러한 뇌의 기능적 역할이 동일하다고 해서 발생하는 심적 상태의 내용도 동일하다고는 말하기 어려우며 그런 이유로 정신업로딩 이후 복수의 몸에 옮겨진 자아가 동일함을 담보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신상규<sup>13</sup>는 업로딩에 관하여 패턴주의를 비판하며 ‘개념화 가설’의 전제하에 신체가 없는 단순 정보 패턴의 업로딩은 심리적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한

<sup>10</sup> *Ibid.* p.68-69.

<sup>11</sup> 천현순, *op. cit.*, p.221-241.

<sup>12</sup> 김태경, 「마음-업로딩과 심적상태의 동일성 문제」, 『동서철학연구』 108호, 2023, p.249-268.

<sup>13</sup> 신상규, 「업로딩은 생존을 보장하는가?」, 『철학·사상·문화』 35호, 2021, p.43-66.

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업로딩이 되려면 동일한 조건의 신체 복제도 이루어져야 하며 어느 정도 환경적 조건도 동일한 수준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박상현<sup>14</sup>은 영화 <트랜센던스 *Transcendence*>와 <그녀 *her*>에 나오는 형상 없는 트랜스휴먼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며, 비록 몸은 없지만 이들 트랜스휴먼은 컴퓨터라는 물리적 형체 속에서 몸의 현상학적 특성인, 신체 도식이나 지향성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 지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광제<sup>15</sup>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존재론적 규정문제를 인간과 로봇의 의미 소통 관점에서 조망하는데 인간과 로봇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자율적으로 서로 소통한다면 로봇을 지향성을 발휘하는 존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논의 중, 천현순은 정신업로딩에 대한 연구를 두 편의 영화 <트랜스퍼 *transfer*> 와 <셀프/리스>를 예시로 들어 철학과 기술적 배경을 토대로 분석하였는데 데카르트적 심신이원론이 자연과학을 거쳐 현재의 과학기술에 그대로 계승되었음을 지적하였고, 데카르트와 로크를 통해 정신(기억, 두뇌)이 자아동일성에 있어 기준임을 설명한다. 천현순은 정신업로딩 기술이 미래에 실현가능한 기술이 될 것임을 전제하지만 그럼에도 논문 말미에서 영화에 그려진, 심신이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몸 기억'에 대해 주목한다. 그래서 심신일원론을 주장한 스피노자를 잠깐 언급하며 심신이원론 이외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글을 끝맺는다. 필자는 천현순이 의문을 제기한 '몸 기억'이라는 영화적 상상력이 단순한 상상력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메를로-퐁티가 주장한 몸-주체 철학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임을 상기하면서 심신이원론에 기반한 정신업로딩 연구에 이의를 제기하고 인간의 정신과 신체활동은 분리가 아

<sup>14</sup> 박상현, 「영화 속 인공지능의 현상학적 인간성- 영화 "트랜센던스"와 "그녀"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55호, 2016, p.192-201.

<sup>15</sup> 조광제, 「인간과 로봇의 의미소통 - 메를로 - 퐁티의 실존론적 - 변증법적 행동주의를 바탕으로 -」, 『시대와 철학』 16(4)호, 2005, p.71-104.



닌 통합된 작용이며, 그동안 간과되어 오던 몸의 실존적 위치를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김태경의 글에서 그가 주장한 대로, 정신 업로딩을 가능한 것으로 상정하는 ‘기능주의’와 ‘정신에 관한 계산 이론’이 심적 상태의 발생 측면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기전으로 발생된 심적 상태가 동일한 심적 내용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동일하지 않은 심적 내용을 만들어 내는 요인을 메를로-퐁티의 몸-주체 철학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2) 뇌과학의 발전 상황

현대 신경과학은 물리학의 발전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진보를 이뤘다. 현재 뇌과학은 MRI스캐너와 뇌전도(EEG) 스캐너, 자기장 이용, 뇌심부자극술, 광유전학, 투명한 뇌 등의 장치와 기술을 이용해 놀랄만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미래에는 이러한 기술과 장치를 수정 보완하고 중국에는 나노 기술을 이용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computer interfaces, BCI)를 구현하여 집단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BCI는 나노 로봇을 인간의 혈류 속으로 주사해서 뇌로 침투시킨 뒤, 개별 뇌 신경 세포들과 외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로 이 기술이 실현될 경우, 다른 사람들의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도 가능하기에 집단적 네트워크 형성도 가능하다고 한다<sup>16</sup>. 이와 더불어 뇌와 뇌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brain-to-brain interface, BTBI) 기술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2013년에는 이미 동물 실험단계를 넘어 인간의 뇌-뇌 통신을 구현하기도 했다. 워싱턴 대학에서 진행된 이 실험에서 실험 참여자는 EEG 헬멧을 쓰고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오른팔을 움직이는 동작을 상상했는데 이때 발생한 신호가 인터넷을 거쳐 다른 수신자에게 전달되었고 수신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정된 헬멧에 의해 오른팔을 움직였다. 이 실험의

<sup>16</sup> Eve Herold,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 강병철 옮김, 꿈꿀자유 서울의학서적, 2020, p.193.

성공으로 한 사람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sup>17</sup>. 그 이외에도 인간의 심적 활동의 생성 기전을 밝히려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고 ‘나’라는 인식은 뇌의 어느 부위에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연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현재 심리학과 생물학 분야에서는 자아정체감을 인식하는 뇌 부위로 전전두피질의 일부인 ‘내측 전전두피질’이 유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8</sup>. 이런 연구들의 진행 상황을 볼 때, 조만간 한 사람의 의식을 모두 데이터화하여 다른 몸이나 컴퓨터로 전송하는 기술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 3) 트랜스휴머니즘과 철학적 근간

인간 능력의 향상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의 뿌리는 18세기 유럽에 전파된 계몽철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계몽주의 시기에 이르러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탐구가 강조되면서 인간 능력의 향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 당시 계몽주의 철학을 전개했던 철학자들은 르네 데카르트, 임마누엘 칸트, 존 로크, 프랜시스 베이컨 등이 있다.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는 방법서설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선언하면서 사유하는 자아를 존재의 본질로 상정하였다. 또한 “나는 현존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로부터, 그리고 그동안 나의 본성 즉 본질에 속하는 것은 나는 사유하는 것, 오직 이것 뿐임을 내가 깨닫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로부터, 나의 본질이 나는 사유하는 것, 이 하나에 있음을 나는 정당하게 결론짓는다. 그리고 어찌면(아니, 오히려, 바로 뒤에 말하겠지만, 확실히) 내가 신체를 갖고 있고, 이것과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해도, 한편으로, 나는 연장된 것이 아니라 오직 사유하는 것인 한에서 나 자신에 대한 명석판명한 관념을 갖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연장된 것인 한에서 신체에

<sup>17</sup> Michio Kaku, 『마음의 미래』, 박병철 옮김, 김영사, 2015, p.143-144.

<sup>18</sup> *Idid.*, p.98.

대한 판명한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신체와 실제로 구별되고, 내 신체와 별도로 현존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sup>19</sup> 고 주장함으로써 데카르트는 자신의 본질이 사유하는 것에 있기에, 신체 없이도 자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밀접하게 결합된 신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신(또는 영혼)이 신체와 별개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관념은 이후 몸과 정신을 분리해 생각하게 하는 단초가 되었으며 이러한 몸에 대한 정신의 우위와 분리 가능성은 칸트에게서도 확인된다. 칸트는 “인간신체로부터 발생하는 욕구에 따른 행동이 우리의 실천적 세계를 지배하지만, 인간이성에 의한 이 실천적 세계에 대한 완전한 제어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인간신체로부터 발생하는 욕구는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의 도덕적인 삶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비록 인간의 욕구가 자기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의미를 가질지도 모르지만 인간 본연의 삶으로서의 도덕적인 삶은 인간이성의 명령에 근거해 있다.”<sup>20</sup> 이데아론을 펼치며 이성적 사고를 중시했던 플라톤을 위시해 이성 중심의 서구 철학의 전통은 데카르트를 비롯한 계몽주의적 철학자들에 와서는 이성과 신체를 분리하여 별개로 상정하게 되었고 근대 과학기술 발달과 함께 이성 중심 사고 전통은 더욱 공고해지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서양 철학에서의 이성 중심 사고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의식하는가를 스스로 의식할 수 있는 “반성하는 의식(*conscience réflexive, reflective consciousness*)”이며 “과학 기술적인 문명은 이러한 반성하는 의식의 산물”<sup>21</sup>이라 할 수 있다. 진보와 합리성에 대한 열망은 계몽주의 시대의 중요한 이상이었고 이는 인간중심주의 전통을 이어받은 트랜스휴머니즘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닉 보스트롬이 주축이 된 세계트랜스휴머니스트 협회(World Transhumanist Association, WTA)의 2002년 「트랜스휴

19 René Descartes, 『제일철학에 관한 성찰』, 이현복 옮김. 문예출판사, 2021, p.110-111.

20 정병화, 「공감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살'적 분석」, 『문화와 정치』 7(4)호, 2020, p.8-9.

21 조광제, 「메를로-퐁티의 몸 철학 : 「자각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 2022, p.5.

머니즘 선언 Transhumanist Declaration」에서 이 계몽의 유산은 명시적으로 제시된다. 그 내용은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의 지능, 육체, 정신을 강화하고 인간 이성의 힘으로 인간 조건의 가능성, 정당성을 지지하는 지적 문화적 운동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렇듯 트랜스휴머니즘의 바탕은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와 진보에 대한 믿음과 같은 계몽주의 철학 전통의 인간중심주의에서 시작되었으며 차이라면 과학과 기술에 대한 급진적인 대체를 인정하고 기대한다는 점일 것이다. 트랜스휴머니즘에도 여러 학파가 있어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이들 모두 기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들이 기술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술이 인간을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동력이며 이에 따라 신을 대신하여 인간이 스스로를 재설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트랜스휴머니스트인 맥스 모어(Max More)는 외과 수술이나 유전공학, 나노기술, 정신 업로딩과 같은 기술을 통해 인간의 신체 형태를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개념은 바이오해킹 단체에 의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다른 트랜스휴머니스트 나타샤 비타-모어(Natasha Vita-More)는 포스트휴먼 신체 설계를 10년 이상 연구해 오고 있는데, 그녀의 ‘프리모 포스트휴먼(Primo Posthuman)’ 기획은 통찰력이 돋보이나 다른 트랜스휴머니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심신이원론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이들은 인간의 신체를 ‘제한적이고(limited)’, 점점 ‘낡아지는(wear out)’ 것으로 이해하며 신체를 필요에 따라 새롭게 개조할 수 있는 장비나 의상처럼 생각한다. 이런 관점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에 기반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신체보다는 정신의 우위를 상정하며 서구 철학사에서 오랫동안 정신의 우위와 도구로서의 신체 개념을 계승해왔다. 이런 전통을 계승한 트랜스휴머니즘은 도구로서의 신체를 개조하여 정신의 유한성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sup>22</sup>.

<sup>22</sup> Francesca Ferrando, *op. cit.*, p.77-88.

#### 4)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한 비판적 견해

그러나 이들의 기술에 대한 믿음과 그 잠재력에 대한 낙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술환원적인 관점은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다. 일찍이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그의 에세이「기술에 관한 물음 *The Question Concerning Technology and Other Essays*」에서 기술에 관한 논의를 존재론적 관점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기술의 본질을 고대 그리스어의 어원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의미의 전통을 따라 분석했는데, 기술(Technology)을 뜻하는 그리스어 ‘테크네(Techne)’에는 단순히 기술적 숙련이나 도구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이에시스(Poiesis)’와 같이 진리를 밖으로 드러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근대를 거치며 현재에 이르러 특히나 자연에 대해서 기술은 존재자를 드러냄, 즉 “탈은폐”<sup>23</sup>의 잠재력을 잃어버리고 “몰아세움(Enframing)”<sup>24</sup>의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왜곡으로 이제 기술은 창조적인 포이에시스의 가능성을 잃고 현실적 필요에 의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하이데거는 개탄한다<sup>25</sup>.

이러한 비판적 견해는 에드문트 후설(Edmund Hesserl)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그는 근대 서구의 삶과 학문을 ‘위기’로 진단하고 이의 원인이 자연과학을 ‘이념화’하면서 비롯되었다고 역설하며 ‘판단중지’를 통해 그동안의 모든 사유를 중지하고 사태 자체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질문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후설의 현상학을 계승하여 독특한 몸-주체 철학을 주장한 메를로-퐁티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후설이 여전히 관념론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sup>26</sup>, 하이데거도 후설의 ‘생활세계’를 다시 설명할 뿐<sup>27</sup>이라

<sup>23</sup> *Ibid.*, p.93 재인용.

<sup>24</sup> *Ibid.*, 재인용

<sup>25</sup> *Ibid.*, p.91-95

<sup>26</sup> 심귀연, 「서명: 『메를로-퐁티의 신체현상학』 - 철학함 혹은 철학이란 무엇인가」, 『대동 철학』 제91호, 2020, p.270.

<sup>27</sup> Maurice Merleau-Ponty, 『자각의 현상학』, 류의근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2, p.14.

고 비판하며 자신의 몸-주체 철학을 전개해 나간다. 그의 몸-주체 철학은 본질을 찾으려는 이성 중심의 전통 철학을 비판하고 현존을 중요시했으며 현존을 가능하게 하는 “신체화된 의식(*conscience incarnée, embodied consciousness*)”<sup>28</sup>을 이야기함으로써 계몽철학의 심신이원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철학이라 할 수 있다. 트랜스휴머니즘에서의 몰아세움과 같은 인간중심주의적 기술 개발을 비판하는 또 다른 흐름은 트랜스휴머니즘의 생성과 비슷한 시기인 20세기 후반에 형성된 포스트휴머니즘을 들 수 있다. 포스트휴머니즘도 “기술을 인간 역량의 특성”<sup>29</sup>으로 보지만 자신의 이론을 “일종의 기술 환원론으로 축소”<sup>30</sup>하지는 않는다. 대신 “기술이 기술적인(*technical*) 시도로만 반복적으로 축소되는 각본 안에서 간과되어온 기술의 존재론적 중요성을 재평가”<sup>31</sup>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은 “특정한 이해의 중심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의미”<sup>32</sup>에서 탈-중심화, 탈인간중심주의, 탈인류세, 탈이원론적 관점을 지향한다.

### 3. 메를로-퐁티의 세계-로의-존재인 몸

후설, 하이데거와 같이 자연과학이 취하고 있는 태도, 즉, 자연과학이 “보편학이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는”<sup>33</sup> 것을 비판한 메를로-퐁티는 자신의 독특한 몸 철학을 역설하면서 데카르트적 이분법을 비판하고 있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우리의 몸은 정신의 명령을 따르는 수동적 도구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지각하며 삶을 영위해 가는 몸이며, 몸으로 세계 속에

<sup>28</sup> 학자에 따라 ‘육화된 의식’, 혹은 ‘체화된 의식’으로 달리 칭한다. 필자는 신체 개념의 통일성을 위해 ‘신체화된 의식’으로 표기한다.

<sup>29</sup> Francesca Ferrando, *op. cit.*, p.89.

<sup>30</sup> *Ibid.*

<sup>31</sup> *Ibid.*, p.99.

<sup>32</sup> *Ibid.*, p.89.

<sup>33</sup> 심귀연, *op. cit.*, 2018, p.165.

거주하며 시간과 공간을 스스로 “정위”<sup>34</sup>해 나가는 몸이라고 주장한다. 이 말은 우리의 몸은 시공간 속에 그냥 객체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시공간 속에서의 구체적 상황에 적응하면서 구조화된다는 의미이다. 상황에 적응하면서 구조화된다는 의미는 메를로-퐁티가 설명하는 지향호, 세계-로의-존재, 신체 도식, 살(chair)의 개념을 통해 드러난다. 이 장에서는 메를로-퐁티의 이러한 용어 설명을 통해 그의 사상을 소개하겠다.

### 1) 지향호

‘지향호(arc intentionnel)’는 메를로-퐁티가 우리 몸이 대상을 지각하는 방식이 지향적임을 설명하면서 만든 개념이다. 지향 호는 엄밀하게 말하면 몸의 지향성을 의미하며 ‘몸의 지향성’은 메를로-퐁티가 후설의 ‘의식의 지향성’ 개념에서 의식 대신에 몸을 바탕으로 개념을 전개하면서 변형한 개념이다. 후설의 ‘의식의 지향성’은 의식은 늘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이며 그 ‘무엇’은 바로 의미를 일컫는다. 메를로-퐁티는 그 의미 생성이 의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몸이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았다<sup>35</sup>. 그래서 메를로-퐁티의 지향 호는 구체적 상황에 처한 몸이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운동하는, 몸의 지향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향 호<sup>36</sup>에 대해 메를로-퐁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식의 삶 -인식의 삶, 욕망하는 삶, 또는 지각적 삶- 은 ‘지향적 호arc intentionnel’ 에 의해서 기초지어지고, 이 지향 호(弧)는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의 과거, 미래, 인간적 환경, 물리적 상황, 이데올로기적 상황, 도덕적 상황을 기투하며, 아니,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모든 관계 속에 위치지어지

<sup>34</sup> Maurice Merleau-Ponty, *op. cit.*, p.372.

<sup>35</sup> 조광제, *op. cit.*, 2022, p.9-10.

<sup>36</sup> ‘지향 호’는 『지각의 현상학』 과의 통일을 위해 류익근의 번역을 따라 표기하였고, 경우에 따라 지향 호, 지향호 두 가지로 표현한다. 조광제는 지향궁으로 표기하고 있다.

도록 한다. 감각의 통일성, 감각과 지능의 통일성, 감성과 운동성의 통일성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 지향적 호이다. 환자의 질병에서 ‘풀려 있는’ 것은 바로 이 지향 호이다.<sup>37</sup>

위의 글은 메를로-퐁티가 두뇌 후두부에 손상을 입은 슈나이더(Schneider)라는 환자의 케이스를 예로 들어 지향 호의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위에서 말한 의식은 몸의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 ‘신체화된 의식’을 말한다. 그래서 지향 호는 자극이 오면 감각을 수용해 반응을 하는 “선형적인 인과성”<sup>38</sup>의 과정이 아니라 “주체의 지향적인 동기부여와 대상의 지평적인 상황성이 통일되는 상태를 전반적으로 일구어내는 능력”<sup>39</sup>이며 운동성으로서의 몸의 지향성을 의미하게 된다. 전통 사상에서의 지향성은 “지향할 대상을 의식 작용이 구성해서 비로소 지향”<sup>40</sup>하는 것이지만 메를로-퐁티가 주장하는 지향성은 의식 작용이 대상을 구성하기 전에 “세계와 의미 관련을 맺는 상태”<sup>41</sup>에서 세계로부터 “인식의 자료가 주어진다”는 것<sup>42</sup>이다. 즉, 인식 주체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거주하면서 세계와 긴밀하게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지향하는 대상에는 이미 주체의 동기와 상황이 투사되어 있고 동시에 그 대상으로부터 인식 자료를 받으면서 구체적 상황 속에서 관계 맺음을 하며 삶을 영위해 간다는 의미이다. 슈나이더의 경우, 이러한 지향 호의 기투와 통일 능력이 손상되어 두뇌의 인지적, 지성적 활동은 가능하나 이를 상황적으로 체화하여 의미를 생성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메를로-퐁티는 지적한다. 그래서 그에게 만년필의 걸개 부분을 보이지 않게 한 뒤 펜을 보여주고 무엇인지 맞춰보라고 하면 그는 정상인들처럼 단번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의미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sup>37</sup> Maurice Merleau-Ponty, *op. cit.*, p.218.

<sup>38</sup> 조광제, *op. cit.*, 2004, p.192.

<sup>39</sup> *Ibid.*

<sup>40</sup> *Ibid.*, p.324.

<sup>41</sup> *Ibid.*

<sup>42</sup> *Ibid.*



계속해서 언어를 개입시켜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처음에는 막대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다가 걸개를 보여주면 연필이거나 펜대일 거라고 말하고 그리고는 뭔가를 적기 위한 도구라고 한 뒤, 마지막에 만년필이라고 말한다. 슈나이더의 경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상을 우리가 인식한다고 할 때 정상인이라면 단번에 그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그때 그 대상은 우리에게 정보의 나열에 의한 해석작용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의 친밀성을 통해 단번에 만년필이라는 의미로서 다가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메를로-퐁티는 “정상인에게서 주체의 의도들은 즉각적으로 지각장<sup>43</sup>에 반영되고, 즉각적으로 지각장을 극화하고, 혹은 그것들의 도해에 따라 즉각적으로 지각장에 표식을 가한다. 혹은 결국 주체의 의도들은 별 노력 없이 지각장에 의미의 파동이 태어나게 한다. 환자의 경우 지각장은 이러한 조형성을 상실”<sup>44</sup>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슈나이더의 경우는, “상황 속에 자신을 놓을 줄 아는 능력”<sup>45</sup>, 지향 호가 결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우리 몸과 세계는 서로 뫼비우스의 띠처럼 상호 의미를 교환(소통)하는 방식으로, 얽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서로 상대적인 관계이기에 몸이 없으면 세계가 없고, 세계가 없으면 몸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의 교환은, 의식(정신) 차원에서가 아니라 ‘신체화된 의식’, 곧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메를로-퐁티는 “대상을 향해 일어나는 손동작에는 그 대상을 표상된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투되어 내던지는, 우리가 미리 곁에 있는, 우리가 떠나지 않는 너무나 특정한 사물로서 그 대상과 맺고 있는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sup>46</sup> 라고 이야기했다<sup>47</sup>.

43 지각장은 우리의 감각과 지각을 통해 몸이 세상과 얽혀있는 능동적이고 신체화된 과정

44 *Ibid.*, p.182 재인용.

45 *Ibid.*, p.191.

46 Maurice Merleau-Ponty, *op. cit.*, p.221.

47 조광제, *op. cit.*, p.180-183.

## 2) 세계-로의-존재

위에서 이야기한 구체적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몸, 그 상황 속 문제들을 해결하며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세계-로의-존재(être-au-monde)<sup>48</sup>라고 한다. 괄호 속 프랑스어 'être-au-monde'에서 가운데 'au'는 전치사 à와 정관사 le를 축약한 것으로 전치사 à는 '~에서'의 의미이고 le는 '~을 향해'라는 의미로 두 가지 뜻을 모두 갖는 말이다. 그래서 세계(구체적 상황)에 거주하며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매일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한 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한다. 직장에서는 여러 프로젝트와 이런저런 회의를 하며 주어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나의 몸은 계속해서 움직이며 상황 속에서 대상들, 타인들과 연결된다. 이런 관계 맺음을 통해 나는 일을 마무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퇴근길에 오른다. 이렇게 계속되는 연결망 속에서 몸을 지닌 우리는 지각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몸을 지니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의미는 정상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몸을 지니고 구체적 상황 속에서 대상들과 관계 맺으며 의미를 만들어 가기는 비정상인도 마찬가지이다. 아래는 한 특수교사가 뇌병변 장애인을 치료하며 경험한 사례로 세계에 거주한다는 의미를 너무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예이다.

연구자는 최근 한 장애인생활시설에 수차례 방문했다. 그곳에서 연구자가 만난 뇌병변장애인들 중 1/3은 와상장애인이었다. 뇌병변이 동반된 와상장애인 중 언어적 손상이 심해 구화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거주인들, 종사자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메를로-퐁티의 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몸 감각을 통한 접촉이었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감각 덩어리인 '살'을 통한 것이다. 그중 언어기능과 시각기능이 손상된 A가 연구자를 알아보는 방법은 특별했다. A와 연구자가 소통하게 된 전 과정은 생략하고, A는 연구자의 걸음

<sup>48</sup> '세계-로의-존재'는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 때문에 김화자의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 내 번역을 따른다. 류의근은 세계-어로-존재로, 조광제는 세계에의-존재로 번역하였다.

걸이로 인해 울리는 바닥의 진동으로 연구자를 지각한다. 그리고 A는 자신과 연구자가 2걸음 정도 떨어진 상태가 되면 어김없이 연구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몸의 지각을 통해 인식한다. 그렇게 연구자를 지각하고(자신의 세계 속에 들어온 연구자를 지각한 것이다) 연구자를 향해 자신의 팔을 10cm 정도 들고 흔들며 자신을 표현한다(자신의 세계 속에 들어온 연구자의 세계 속으로 자신 또한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가 A자신의 몸(팔)을 연구자의 몸(손)으로 지각하고 지각시키면 그는 연구자를 지각하고 또한, 연구자를 지각시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흔들며 반응해 서로가 서로의 '세계-로의-존재'가 되는 것이다. A와 연구자가 서로를 지각하는 전 과정은 오롯이 서로를 지각하고 지각하게 하는 몸의 지각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sup>49</sup>

위의 글로 보면, 방법은 다르지만 뇌병변 장애인 역시 자신의 신체적 조건에 맞는 도식을 지니고 구체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체로서 주변 환경을 지각하고 행동(표현)하면서 세계 속에 거주하고 있다. 사유의 대상인 신체가 아니라, 지각하는 신체로 다른 존재와의 얽힘 속에서 세계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 3) 신체 도식

신체 도식<sup>50</sup>(schéma corporel, bodily scheme)은 “기본적으로 외모, 신체적 운동, 위치, 판단 등과 관련하여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가지는 주관적 경험”<sup>51</sup>이라 할 수 있으며 메를로 퐁티는 “나에 대하여 나의 모든 신체는 공간에 병존된 기관들의 모임이 전혀 아니다. 나는 그것을 공동 소유하고 나의 다리의 어느 하나의 위치라도 그 다리가 감추어져 있는 신체 도식(schéma corporel)에 의해서 인식한다.”<sup>52</sup>고 했다. 이런

49 이형일,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 관점을 통한 장애인의 몸에 대한 고찰』, 『한국장애학회지』 6-2호, 2021, p.46.

50 신체 도식(le schéma corporel, the bodily scheme)은 『지각의 현상학』에서의 번역을 따른다. 조광제는 이를 ‘몸틀’로 표기하고 있고, 김화자는 ‘몸 도식’으로 번역하고 있다.

51 *Ibid.*, p.166 하단 각주.

신체 도식을 토대로 습관이 형성되고 또한 습관에 의해서 신체 도식이 수정, 갱신되기도 하면서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장님의 지팡이를 예로 들면, 장님에게 지팡이는 처음에는 대상으로 존재하며 그에게 촉각적 신체는 손의 피부 끝까지로 한정된다. 그러나 지팡이 사용이 익숙해지면서, 그가 느끼는 촉각적 신체는 지팡이 끝까지 확장된다. 이제 그에게 지팡이는 지각할 대상이 아니라 신체의 부속기관으로 신체적 종합의 연장이 된다. 이때 그의 신체 도식은 지팡이 끝까지로 확대되는 것이다<sup>53</sup>. 이러한 신체 도식의 개념은 우리의 몸은 공간 속에 단순히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거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거주한다는 것은 내 몸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 작용하면서 낯선 사물들이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신체는 사유(정신작용)의 대상으로 텅 빈 공간 속에서 있는 객관적인 신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규정되는 잠재적 신체”<sup>54</sup>로서 공간을 새롭게 구성해 가기 때문에 공간성은 시간성을 함축한다<sup>55</sup>. 이를 설명하기 위해 메를로 폰티가 사례로 제시한 베르트하이머(Wertheimer) 거울방 실험을 예로 들어 보자.

피실험자가 자기가 있는 방을 45도에서 직각을 유지하면서 비추는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그 피실험자는 우선 방이 ‘비스듬해지는 것’을 본다. 그곳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한 면에 기대어 걷는 것처럼 보인다. 문틀을 따라 떨어지는 판지 조각은 떨어지는 방향이 비스듬해 보인다. 전체가 ‘이상하게’ 된다. 몇 분 후 갑자기 어떤 변화가 생긴다. 즉 벽, 그 방에서 이동하는 사람, 판지 조각의 낙하 방향이 ‘수직’이 된다.<sup>56</sup>

<sup>52</sup> *Ibid.*, p.165-166.

<sup>53</sup> *Ibid.*, p.228.

<sup>54</sup> 심귀연, 「메를로-폰티에 있어서 시공간성과 주체성 그리고 신체」, 『철학논총』 76호, 2014, p.486.

<sup>55</sup> *Ibid.*

<sup>56</sup> Maurice Merleau-Ponty, *op. cit.*, p.378 재인용.

위 실험은 45도로 기울어진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방에 피실험자를 들어가게 할 경우, 처음에는 방이 비스듬하게 느껴지면서 움직이는 사람도 한 면에 기대어 걷는 것처럼 보이고 떨어지는 판지 조각도 비스듬하게 떨어지는데, 몇 분 후부터는 그 장면에 익숙해지면서 걷는 사람도 똑바로 걷고 판지 조각도 수직으로 떨어지게 보인다는 것이다. 위 실험에서 알 수 있듯, 우리의 신체는 “공간적 수준”<sup>57</sup>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구성해 가는 유동적 신체이다. 이러한 신체는 주체적 신체로서 공간적 수준에 적응하며 새롭게 공간을 구성하고 세계로 확장해 간다. 즉, “지각된 광경과 나의 몸은 일종의 순환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 새로운 광경이 나(의 신체)를 부추기고, 그 광경에 맞춰진 나(의 신체)는 이제 새로운 광경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몸은 단순히 현실에 대한 감각 덩어리가 아니라, 주어진 광경을 지각하고 공간 수준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함께 공간을 ‘이해하는’ 능력을 포함한다.”<sup>58</sup>

이렇듯, 공간을 이해하는 신체는 내가 거주하는 공간을 예민하게 감각하면서 내 몸과 닿아있는 타인의 몸(대상)과 서로 얽히며 그 속에서 의미를 구성해 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내 몸은 모두 따로따로 떨어진 사유의 대상으로의 객관적 몸이 아니라, 신체를 가지고서 지금 여기 세계 속으로 참여함으로써 즉, 서로 다른 몸과 얽힘으로써 “실존적 공간”<sup>59</sup>을 만들게 된다. 또한 신체 도식 속에는 “자신만의 고유한 습관뿐만 아니라 익명적인 문화, 언어 규칙의 체계도 잠재적인 형태로 스며들어”<sup>60</sup>있는데, 이는 곧 세계 속에 거주하는 몸은 그 자체가 세계로 향하는 매개로서 열려 있으며 관계적이라 할 수 있다.

<sup>57</sup> Ibid.

<sup>58</sup> 박은정, 「하이데거와 메를로-퐁티의 '공간' 개념 -정위(定位)와 원근(遠近)의 비교를 중심으로-」, 『존재론연구』 24호, 2010, p.366.

<sup>59</sup> Maurice Merleau-Ponty, *op. cit.*, p.378.

<sup>60</sup> 김희자, 「모리스 메를로-퐁티의 표현론에 나타난 형태와 상징의 관계」, 『현상학과 현대철학』 40호, 2009, p.129-130.

#### 4) 살(chair) 존재론

메를로-퐁티의 ‘살’ 존재론은 『지각의 현상학』에서의 몸-주체 이론이 “여전히 주체중심에 자리하면서 세계로 지향”<sup>61</sup>해 간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주체-대상의 이분법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살’ 개념으로 이행한다. 이 개념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눈과 정신』에서 주로 논의되었는데, ‘살’은 사물과 우리 몸이 생겨난 근원적인 “피륙”<sup>62</sup>과 같은 것으로 “모든 이분법적인 실재의 토대”<sup>63</sup>이며 “모든 보이는 존재들의 거주지”<sup>64</sup>라고 하였다. 또한 “나의 신체와 세계의 공통 재료(éttoffe commune)”<sup>65</sup>인 살의 개념을 통해 “나의 살’과 세계의 살 사이의 진정한 통합”<sup>66</sup>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세계의 공통 재료인 살의 개념으로 봤을 때 “나”라는 존재는 이미 주어진 것(the given)으로 혹은 경험적 귀납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타자’라는, 존재와의 근원적인 연루 속에서 형성”<sup>67</sup> 된다고 함으로써 주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주체와 타자를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고 주체와 대상, 인간과 세계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감각하는 자와 감각되는 자가 서로 얽혀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때 주체와 대상은 살이라는 “연루의 지지대(support)”<sup>68</sup>에 같이 맞물려 있으면서 보는 주체로 또는 보이는 대상으로 양방향의 가역적 운동을 한다. 그래서 타자를 만나는 것은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동일한 살의 일부로 타자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듯 살을 통해 실현되는 가역적 성격을 메를로-퐁티는 상호주체성

61 삼귀연, *op. cit.*, 2018, p.173.

62 Maurice Meleau-Ponty,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 김화자 옮김, 책세상, 2020, p.135.

63 *Ibid.*

64 *Ibid.*

65 이소희, 「후기 메를로-퐁티의 살의 존재론에서 본 세계」, 『현상학과 현대철학』 40호, 2009, p.196.

66 *Ibid.*, p.197.

67 장병화, *op. cit.*, p.13.

68 *Ibid.*, p.21.

(intersubjectivity)<sup>69</sup>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호주체성의 개념은 우리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공감한다고 할 때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되기도 한다. 그것은 구체적 상황 속에 놓여진 우리의 지각은 “주체의 독단적인 구성 활동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일종의 반영, 바로 ‘살’의 반영을 의미”<sup>70</sup>하기 때문이다.

#### 4. 영화 속 트랜스휴먼 분석

##### 1) 영화 소개

영화 <셀프/리스 *Self/Less*> 는 인도 출신으로 할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타셈 싱(Tarsem Singh) 감독의 2015년 작품으로 뉴욕의 부동산 재벌 데미안이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되자 건강한 육체로 정신업로딩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젊은 육체로 정신을 이송한 후, 데미안은 원래 육체의 주인이었던 마크의 기억과 서로 갈등을 빚으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고 몸의 주인인 마크를 각각 남편과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 부인과 딸의 고통을 보면서 결국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신체를 원래의 주인인 마크에게로 돌려준다는 스토리이다. 정신 업로딩과 관련한 철학적 주제를 내포하면서도 몸의 주인인 마크와 올브라이트 박사 수하들과의 총격전이 두드러지는 액션물로서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위 작품과 비교할 또 다른 영화로 역시 할리우드 영화인 제니퍼 팡(Jennifer Phang) 감독의 2015년 작품이다.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그리고 있는 <더 나은 선택 *Advantageous*> 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시아계 중년 여성 그웬이 주인공이며, 그녀는 딸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sup>69</sup> 학자에 따라 상호신체성, 상호주관성 등으로 번역한다.

<sup>70</sup> Maurice Meleau-Ponty, *op. cit.*, 2020, p.133.

주고자 자신이 다니는 생명공학 회사의 성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그녀는 젊은 여성의 몸으로 자신의 정신을 전송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웬의 경우도 <셀프/리스>와 마찬가지로 젊은 몸에 깃들어 있던 기억과 자아와의 충돌로 극심한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되고 딸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게 된다. 회사의 기획은 결국 기술이 미흡한 상태임에도 한 단계 성장하려는 자본주의적 욕망의 기획임이 드러나고 그웬은 사실을 알면서도 딸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사라지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 작품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고 현생인류가 인공지능에 뒤처지기 시작하는 ‘특이점(Singularity)’의 시대를 그린다. 이제 인간이라는 정의가 무엇인지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오히려 되묻고 있으며 지금보다 더 치열해진 경쟁과, 더 벌어진 빈부 격차, 완충 장치 없이 위기에 내몰린 여성의 사회적 지위 등 미래의 디스토피아적 상황이 그려진다. 이 영화에서는 그웬과 등장인물들의 심리적 변화와 상황이 이들의 표정이나 행동, 음악, 색채 등을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며 그웬역의 재클린 김(Jacqueline Kim)의 인상적 연기가 잔상을 남기는 작품이다.

## 2) 껍데기로서의 몸 vs. 몸-주체

먼저 <셀프/리스>에서 정신업로딩 사업을 비밀리에 하고 있는 올브라이트 박사는 영화 중간에서 암시되는 대로 역시 자신도 늙고 병든 몸에서 제자의 젊은 몸으로 정신을 이송한 것으로 드러난다. 올브라이트 박사는 이 기술을 적용할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선택하지 않고 선별하는데, 피닉스 바이오제닉사(Phoenix Biogenic)라는 상호가 말해주듯 영생을 살 자격을 부여받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함을 알 수 있다.

고객들이 부유하긴 하지만 돈이 자격은 아닙니다. 우린 위인들을 고객으로 하죠. 이대로 앓긴 아까운 인류의 지도자들. 간단히 말해서 최고의 위인들에게 위업을 이어갈 시간을 연장해 드리는 겁니다. 회장님의 저택, 요트,



전용기까지. 모두 세계 최고가 제작한 것들이죠. 회장님의 새 몸도 그렇게 될 겁니다. 유전공학적으로 완벽한 몸입니다. 운동선수 수준으로 배양한 몸이라 인체 능력의 최대치를 경험하실 겁니다.(5:29-06:02)<sup>71</sup>

위 대사에는 여러 층위의 담론이 교차한다 할 수 있는데, 사회계층적 관점은 차지하고라도 우수한 종자(seed)를 선별해서 특화하려는 우생학적 관점에, 발전된 기술을 이용해 신체적 능력을 최고치로 향상시키고, 중국에는 이러한 우수한 정신과 신체가 결합함으로써 증강된(enforced) 인간이 되어 유한성을 극복(immortality)하는, 현생인류를 넘어서는(treascend) 존재로 트랜스휴머니즘적 사고가 서로 교차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육체보다는 정신을 우위에 두고 인간의 본질이 사고하는 뇌에 있다는 심신이원론적 사고가 깔려있다.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데미안은 만들어진 몸의 샘플을 살짝 건드려 보는데, 몸이 움찔하자 살아 있는지 올브라이트에게 묻는다. 이에 올브라이트는 “기본 감각만 살아 있습니다. 생체 조직만 살아있고 지금 상태로는...껍데기죠”(06:11) 라고 말함으로써 신체 그 자체는 인간이라고 규정할 아무런 특성이 없는 물질적인 껍데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이때 몸 샘플은 비닐 포장되어 있어, 상품으로서의 물질성을 한 눈에 드러내고 있다. 정신업로딩을 결심한 데미안은 원통형 MRI 자기장 실린더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전자기파를 방사하며 정신업로딩이 이루어진다. 업로딩이 완료된 뒤, 박사의 조수는 전송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데미안에게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자신의 이름을 말함으로써 데미안은 성공적으로 자신의 기억과 자아가 이식되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전송을 마친 데미안의 본래 신체는 폐기처분된다. 역시 정신이 빠져나간 신체는 물질적인 껍데기일 뿐이라는 도구로서의 이분법적 사고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 나은 선택>의 경우, 그웬은 전극이 잔뜩 연결된 뇌전도(EEG) 헬멧을 쓰고 정신업로딩 과정을 거친다.

<sup>71</sup> 타임코드, 24/07/17 현재 OTT 왓차 서비스 중, 대사 번역은 왓차를 따름.

전송을 마친 데미안은 이제 새로운 신체에 적응하기 위해 적응기를 가 지는데, 영화의 장면을 보면 새로운 신체는 아무런 신체 활동도 할 수 없는 백지 상태의 물질로 묘사된다. 그래서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걸음마부터 수영, 체력 강화 훈련 등을 해 나간다.(1:38:43) 이미 다 자란 성인의 몸인데도, 수동적인 도구적 몸으로 인식되기에 아직 길들이지 않은 낱것의 몸이라는 이원론적 사고가 투영되어 있다. 그러나 메를로-퐁티의 몸-주체 개념에서 보면 우리의 몸은 정신의 하위체계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몸의 지향성과 신체 도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 몸은 지향할 대상을 의식 작용이 구성해서 비로소 지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몸과 세계가 관계를 맺을 때부터 지향과 인식자료의 교환이 동시에 즉각적으로 이뤄지면서 의미를 생성해 내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피곤해서 낮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할 때, 나의 몸은 식탁이 아닌 침대 쪽으로 향하게 되고 침대에 걸터앉으면서 다리부터 올리고 천천히 상체를 누인 뒤, 베개에는 어떤 방식으로 머리를 올릴지 등을 우리 몸의 크기와 모양을 스스로 인식하면서 어디쯤 몸이 누이면 편안할지를 침대 위에서 가늠하는데 이때, 이러한 행동은 정신이 명령을 내려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구체적 환경 속에서 나의 신체가 지각과 행동을 통해 침대라는 대상과 상호 조정하면서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실현된다. 또한, 몸의 이런 지향성을 토대로 시공간에 적응해온 나의 몸은 신체적 도식을 이미 형성하고 있어, 걸기나 수영 등은 하는 방법을 터득했던 몸이라면 환경이 바뀌더라도 약간의 조정만 거치면 이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두 살배기의 체력”(1:37:38)은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신체를 잘 단련시켜야 하는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 관점을 엿볼 수 있다. 이렇듯 우리의 몸은 의식이 본질적인 주체로서 객체인 신체에 명령을 하고 신체는 주체인 의식의 의미 작용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스스로의 지향성에 따라 운동하는 몸-주체이며 이러한 운동의 결과로서 의미가 생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체-객체로서의 정신

과 신체는 메를로-퐁티의 개념에서는 몸이 주체가 되는 몸-주체 개념으로 일원화된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의식(정신)은 몸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생성되는 의식이 아니라 몸을 통해 구체적 상황 속에서 타인, 대상들과 관계를 맺으며 의미를 구성해 내는 ‘신체화된 의식(conscience incarnée)’이다. 그래서 정신과 신체를 분리해서 정신(의식, 기억, 자아)을 데이터화하여 새로운 몸에 이식한다는 이원론적 정신업로딩 기술은 설령 이 기술 개발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데이터에 담길 내용은 신체적 경험이 배제된 단순한 기억으로 그런 기억을 옮겨 받은 몸이 동일한 정체성과 자아 개념을 인식할지 담보하기 어렵다.

### 3) 정신업로딩으로 담을 수 없는 몸 기억

데미안은 박사의 조언대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에드워드 키드너라는 가명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데미안이 새로운 신체에 적응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중에 알 수 없는 기억의 영상이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박사가 준 기억 억제제를 어찌다 거르게 되자 더욱 강화된다. 박사는 환각이라며 억제제의 용량을 늘리라고 제안하지만 데미안은 박사의 말을 의심하며 떠오르는 기억을 더듬어 결국 새로운 몸의 주인인 마크의 집을 찾아간다. 거기서 마크의 부인과 딸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몸이 박사의 말대로 유전공학으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라 딸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몸을 빌려 준 마크의 몸임을 알게 된다. 이때 데미안의 머리에 떠오르는 기억은 데미안이 가지고 있던 기억이 아니라 몸의 주인인 마크가 가진 기억이며 그의 몸에 새겨진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울브라이트 박사와 심신이원론에서 가정하는 대로, 정신(기억)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며, 신체는 그 정신을 기능하게 하는 물질적인 껍질이라면, 새로운 신체에 이식된 데미안은 적응기만 거치면 원래 데미안이 가지고 있던 습관이나 생각 또는 정체성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영화에서는 이에 반하는 장면이 몇 군데 있다. 가령, 마크의 몸을 가진

데미안은 동네 농구장에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는데, 이런 운동 능력은 데미안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올브라이트 박사 수하들과의 추격전에서 데미안은 뛰어난 전투 실력으로 이들을 따돌리며 결국 살아남는데 처음에 화장실에서 한 명의 수하를 간단히 때려눕히는 장면에서 데미안 자신도 생각지 못했던 자신이 빌린 몸에 새겨진 능력에 대해 깜짝 놀란다.(44:39-50) 그리고 이후, 계속되는 추격전 장면에서 그는 고도로 단련된 능력을 보여주는데 역시 데미안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나 기억이 아니라 군인으로 특수훈련을 받았고 농구와 수영을 잘했던 마크의 몸에 새겨진 기억이며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데미안은 땅콩에 대해 알려지가 있었는데, 마크의 몸으로 옮긴 뒤부터는 땅콩껍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몸에서 일어나는 알려지 반응도 자아 정체성을 만드는 특성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자신의 것이 아닌 몸의 생경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우리의 몸은 시공간속에 거주하는 몸이므로 자신만의 신체 도식을 가지고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존재이다. 마크는 오랫동안 군대에 복무하며 각종 전투를 경험함으로써 일반인과 다른 숙련된 전투 능력을 습득한 사람이다. 총을 가진 적들과 싸우는 과정은 그 상황에서의 논리나 이성적 사고보다는, 몸에 새겨진 단련된 '감각'으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적에게 해를 입히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이때 우리 몸은 이미 특정한 경험의 축적을 통해 예민하게 단련되고 개발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 단련의 과정에 논리나 이성적 사고가 포함되어 몸에 통합될 수는 있지만 당장 닥친 생사를 가르는 급박한 전투 상황에서 논리적 사고만으로 총격전을 전개해 갈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이런 훈련 경험이 전혀 없던 데미안의 기억과 정신만으로 상황을 해결했다고 할 수는 없으며 특히, 억제제를 먹으며 데미안의 기억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크의 몸의 능력은 사라지거나 약화되지 않고 결국 여러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하였으니 이런 행동에서의 주체는 데미안의 정신(두뇌)이 아니라 '신체화된 의식'인 마크의 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은 선택〉에서는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웬은 정신업로딩 전에는 피아노를 잘 쳤었다. 그런데 정신업로딩 이후 그웬의 새 몸은 연주를 하지 못한다. 정신업로딩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은 업로딩을 통해 어려운 기술이나 개념 등을 손쉽게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영화 속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진다. 두 영화 모두에서 업로딩받은 기억보다는 원래의 몸에 속한 기억이나 능력이 발휘되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웬이 피아노를 치는 행위는 메를로-퐁티가 예로 든 오르간 연주자가 연주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처럼 “연주석에 앉아 페달을 조종하고, 음전을 사용하며, 자신의 신체로 그 도구의 치수를 재어보고, 방향과 차원을 통합하며”<sup>72</sup> 몸에 익히는 체화하는 행위이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주장하듯 피아노 건반 위에서 매번 위치를 모두 기억하며 정확한 위치를 찾아 그 건반을 누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건반을 보지 않고도 귀로 자신의 연주를 들으면서 피아노를 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두 영화 모두에서 감독들은 이러한 현상학적 관점을 포착하여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영화에서처럼 앞으로 가능할 기술에 의해 몸에 새겨진 기억이 몸을 떠나 데이터화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 기억의 내용이 각인된 몸을 떠나 업로딩으로 다른 몸으로 옮겨진다면, 다른 몸에서는 기억된 그 내용을 원래의 그 강도로 정확하게 다시 기억해 낼 수 있을까? 가령, 내가 개에게 물린 기억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기억은 개에 물렸을 때 내가 느꼈던 공포와 함께 떠오를텐데, 개의 그 사나운 눈빛, 드러나는 이빨의 날카로움, 나의 필사적인 저항, 내 몸에 박히던 개의 날카로운 이빨의 느낌, 뒤이어 느껴지는 내 몸의 통증, 모든 기억이 내 몸의 감각으로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면서 나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게 되는 기억이다. 그런데 똑같은 몸의 통증과 감각의 되살림 없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데이터화된 장면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던 신체화된 기억과 동일할 수 있을까? 혹은 새로운 몸에도 개에게 물렸던 기억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상황, 똑같은

<sup>72</sup> Maurice Merleau-Ponty, *op. cit.*, 2002, p.231.

신체적 조건이 아닌 경우에 경험의 동질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같은 개라도 핏볼과 말티즈는 크기와 느낌이 확연히 다르고 내가 키우던 개와 그날 그곳 외진 산책길에서 맞닥뜨린 개는 느낌과 감정에 있어 천지 차이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때 바로 그 상황에서 '개에게 물렸던 기억'은 다른 몸, 다른 상황에서는 똑같은 강도와 느낌의 기억이기 어렵다. 이 예는 역시 같은 이유로 김태경이 제기한 심적 내용의 동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우리의 경험은 상황(대상)에 따라 계속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지 고정적인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일한 심적 상태를 만드는 동일한 기전에 의해 심적 상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감정이나 반응은 구체적 상황 속에서 대상도 다르고 바뀐 신체적 환경에 따라 지향호나 신체 도식, 습관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심적 내용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또한, 그웬의 몸을 살펴보면 그녀는 집안에서는 엄마로 밖에서는 아시아계 중년 여성으로 또 싱글맘이라는 사회적 의미가 교차하는 몸이기도 하다.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아시아계 여성으로서의 그웬의 신체 도식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미국 사회 특유의 문화 이외에, 동시에 여성이고 아시아계라는 비주류로서 살아가는 공동체적 문화가 스며들어 있다. 자신의 고유한 습관뿐만 아니라 스며들어 있는 다양한 차원의 문화적 잠재성이 단순해 보이는 우리 몸 위를 횡단하며 교차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결국 우리의 몸이 늘 어떤 구체적 상황 속에 거주한다는 걸 나타내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잠재성을 드러낼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려가 전혀 없이 업로딩으로 옮겨진 우리의 정신(자아, 기억, 이성)이 지금 우리의 자아정체성과 동일하리라는 가설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 4) 공통 토대로서의 '살'

우리의 몸은 우리를 둘러싼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추억을 공유하는 몸이기도 하다. 그래서 마크의 몸은 그 혼자만의 몸이 아닌 아내와 딸에게는 자신들의 삶과 감정을 공유한 몸이다. 마크의 몸을 빌린 데미안이 올브라이트 박사의 스승인 프란시스 켄슨 박사의 집을 찾아가는 중에, 그 일당이 쫓아올까봐 불안해하며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고 딸 안나는 예전과 다른 아버지의 표정과 몸짓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같이 불안해한다.(59:43) 소통의 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몸을 통해서 전달된다. 몸을 가진 인간이 행동을 통해 드러내는 감정은 분명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소통 없는 주관적인 느낌”<sup>73</sup>과는 다르다.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감정이 상황 속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며 하나의 상황 속에 각각의 몸들이 세계와 함께 섞여있기 때문이다.”<sup>74</sup> 우리는 몸의 섞임 속에서, 나의 몸을 통한 드러냄과 역시 몸을 통해 드러나는 상대의 감정 속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 데미안이 느끼는 불안은 말로 표현된 것이 아님에도 어린 딸은 아버지의 몸을 통해 드러난 감정, 몸을 둘러싼 분위기를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친구인 마틴의 집에 묵는 동안, 데미안은 안나에게 수영을 가르치며 안나를 통해 아버지를 사랑하는 어린 딸의 감정과 매들린과의 키스를 통해 남편을 사랑하는 매들린의 감정을 공유한다. 데미안이 이런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이들 모녀를 통해 자신의 딸 클레어를 떠올리고 같은 상황에서 클레어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새출발하라는 마틴의 제안에 “애나는...내가 집 떠나던 시절 클레어와 동갑이야”(1:29:47) 라고 말하며 그들 모녀에게 마크의 몸을 돌려주기로 결심한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업로딩한 몸을 원래의 주인인 마크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한 데미안은 억제제를 먹지 않고 며칠을 침대에 누워 견딘다.

<sup>73</sup> 심귀연, 「메를로-퐁티에 있어서 몸과 감정의 문제」, 『대동철학』 80호, 2017, p.93.

<sup>74</sup> *Ibid.*, p.91.

결국 데미안의 기억은 사라지고 마크는 역제 되었던 자신의 기억을 몸속에서 다시 온전히 소환해 낸다. 마크는 부인과 딸을 찾아 카리브해의 섬에 도착하고 부인을 찾아 뜨겁게 포옹을 하는데, 포옹 후, 부인 매들린은 그 몸이 데미안을 품은 몸이 아님을 단번에 감지하고는 마크가 아니냐고 묻는다.(1:49:43) 메를로-퐁티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의미소통이란 “행동을 서로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sup>75</sup> 즉, 상호지향적 행동 속에서 그 맥락에 동시에 젖어 있으면서 의미를 공유할 수 있어야 인간적 의미소통이라 할 수 있다. 상호지향적 행동은 상호주체성을 바탕으로 하며 이때, 그 상황에 참여한 존재는 ‘살’이라는 공통의 조직에 서로 얽히게 된다. <더 나은 선택>에서도 딸 줄스는 새로운 몸의 엄마가 자신의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감지하고 “엄마는 어디 간 거야?”(1:09:38)라고 묻는다. 예전엔 같은 상황에서 그 맥락에 서로 젖어 공유하는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 앞에 앉아 있지만 공통의 ‘살’로서 교감할 수 없음을, 엄마의 부재를 딸은 바로 지각하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몸은 단순한 물질로서의 몸이 아니라 말이 없는 가운데에도 상황을 서로 주고받으며 감정을 공유하는 몸이다. <더 나은 선택>에서 이러한 감정의 공유는 아파트 위, 아래층의 여성들에게도 확대되는데 (12:17-12:56)<sup>76</sup>, 극중에서 이들 여성들은 미래의 특이점 시점에서는 남성뿐만 아니라 AI와의 경쟁에서도 밀리며 주변부로 물러나게 되는데, 그 웬과 딸의 암울한 상황이 똑같이 위, 아래층 여성들에게도 동시에 겹쳐 일어나고 있음을 위, 아래에서 들려오는 여성들의 울음소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울음소리는 다른 모든 소음 속에 묻히지 않고 이들 모녀의 방으로 뚫고 들어와 같은 상황에 연루된 모녀의 ‘살’과 공명한다. 이처럼 오직 몸의 표현을 통해 드러나는 분위기로서의 감정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공통의 토대로서의 ‘살’을 정신업로딩이 과연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까?

<sup>75</sup> 조광제, *op. cit.*, 2005, p.84.

<sup>76</sup> 2024년 8월 Netflix 서비스 중



#### 4. 나가며

위와 같이 정신업로딩과 관련하여 인간 향상을 기치로 하는 트랜스휴먼리즘과의 연관 속에서 그 철학적 뿌리와 기술의 발전 현황, 비판적 흐름을 살펴보았으며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몸을 통해 정신과 몸의 통합을 주장한 메를로-퐁티의 철학을 영화가 제시하는 구체적 상황 속에 대입하여 살펴보았다. 서론에서 제기한 몸 기억의 존재론적 측면을 몸-주체와 '살' 존재론으로 살펴보았고 정신업로딩의 발생적 기전을 연구한 '기능주의'와 '정신에 관한 계산 이론'이 제시하는 동일한 심적 상태를 만드는 기전이, 동일한 심적 내용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들 논의들을 종합해 본 결과, 정신업로딩에 관한 기술 개발은 기존의 심신이원론적인 관점으로는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몸은 정신을 구현하는 도구도, 객관적으로 고정된 물질도 아니며 구체적 상황 속에 매 순간 참여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이 실현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존의 과정은 다른 대상, 타인들과 분리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살'이라는 토대 위에서 서로 얽히며 성립된다. 앞에서 살펴 본 장인과 지팡이와의 비유를 통해 볼 때, 지팡이는 장인의 시각과 촉각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장인이 지팡이를 통해 대상인 지면을 감각할 때, 지팡이에서 받은 정보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장인은 그 정보를 토대로 지팡이로부터의 정보를 더 민감하게 더 정확히 받아들일도록 자신의 신체도식을 새롭게 구성해 나간다. 그래서 그는 지팡이 끝까지로 자신의 신경세포를 확장해 갈 수 있다. 그렇기에, 장인의 손과 지팡이는 주체-객체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지각하고 지각되는 가역성의 상호교차적 운동을 하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역시 확장된 지팡이 끝과 지면과의 사이에서도 똑같이 발생한다. 지팡이는 감각하는 존재이면서 지면에 의해 감각되어지는 대상이 된다. 그래서 지면은 자신의 굳기와 상태, 성분, 거리 등 정보를 지팡이에 전달하고 또 지팡이는 전달받은 정보에 맞추어 지면과의 거리와 위치, 힘 등을

조정하면서 순환적인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몸이 거주하는 세계의 참 모습이다. 메를로-퐁티의 ‘살’ 철학으로 생활세계의 모습을 살펴보면 기술과 인간, 자연과 문화 등 이분화된 개체는 서로 분리된 실체로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는 “존재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차별화된 관계의 직조’”이기 때문이다.<sup>77</sup>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 오던 기술을 통한 몸이나 자연의 통제에 하이데거가 지적한 대로 기술의 본질을 무시한 채 몸이나 자연을 몰아세우는 것이며 그래서 기술의 긍정적 잠재력<sup>78</sup>을 축소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신업로딩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각종 과학프로젝트들은 인간의 존재 방식을 재검토하여 신체/정신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통합된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의 인지과학에서의 신체활동을 통한 체화된 인지 이론이나 상호작용하는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컴퓨터의 개발 등은 인간의 본질을 추상된 정신에서가 아니라 생활세계에 거주하는 현존하는 몸에 두고 이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메를로-퐁티 사유와의 접점을 확인할 수 있다. 메를로-퐁티 철학은 이처럼 몸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몸을 실존의 공간으로 정립시킨다. 또한, ‘살’ 존재론은 김화자<sup>79</sup>의 글에서 알 수 있듯, 앞으로 가속화될 인간-비인간 존재들간의 혼종적 결합 역시 주체들간의 상호교차적 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때 주체와 타자를 연결하되 부정적 한계는 “틈(écart)”<sup>80</sup>을 통해 극복 가능한데, 틈이 있어 완전히 동일하게 합치되지 않으면서도 구별가능하고 상호소통 가능한 공통지대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비인간 혼종의 시대에 기술이 생활세계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도 기술로부터 인간이 소외되지 않을 근거를 메를로-퐁티의 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서의 후속 연구가 더욱 다양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77 김화자, 「사물인터넷과 메를로퐁티의 '상호세계」, 『현상학과 현대철학』 65호, 2015, p.75.

78 이종관, 「테크노퓨처리즘과 네오휴머니즘의 대결 그리고 그 화해를 향하여」, 『현상학과 현대철학』 제59호, 2013, p.5-49.

79 김화자, *op. cit.*, p.62-94.

80 *Ibid.*, p.82.

## 참고문헌

### 단행본

-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대한 강해』, 이학사, 2004.
- Herold, Eve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 강병철 옮김, 꿈꿀자유 서울의학서적, 2020.
- Ferrando, Francesca 『철학적 포스트휴머니즘』, 이지선 옮김, 아카넷, 2021.
- Meleau-Ponty, Maurice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 김화자 옮김, 책세상, 2020.
- \_\_\_\_\_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2.
- Kaku, Michio 『마음의 미래』, 박병철 옮김, 김영사, 2015.
- Descartes, René 『제일철학에 관한 성찰』, 이현복 옮김, 문예출판사, 2021.
- Flusser, Vilem 『피상성 예찬』, 김성재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_\_\_\_\_ 『사진의 철학을 위하여』, 윤종석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 논문

- 김태경, 「마음 업로딩과 심적상태의 동일성 문제」, 『동서철학연구』, 108(0)호, 2023.
- 김화자, 「사물인터넷과 메를로퐁티의 '상호세계」, 『현상학과 현대철학』, 65호, 2015.
- \_\_\_\_\_, 「모리스 메를로-퐁티의 표현론에 나타난 형태와 상징의 관계」, 『현상학과 현대철학』, 40호, 2009.
- 박상우, 「기술이미지, 디지털 사유, 디지털 패러다임 : 빌렘 플루서의 미디어 철학을 중심으로」, 『미학』, 87-1호, 2021.
- 박상현, 「영화 속 인공지능의 현상학적 인간성 -영화 "트랜센던스"와 "그녀"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55호, 2016.
- 박은정, 「하이데거와 메를로-퐁티의 '공간' 개념 -정위(定位)와 원근(遠近)의 비교를 중심으로-」, 『존재론연구』, 24호, 2010.
- 신상규, 「업로딩은 생존을 보장하는가?」, 『철학사상문화』, 35호, 2021.

- 심귀연, 「서평: 『메를로-퐁티의 신체현상학』- 철학함 혹은 철학이란 무엇인가, 『대동철학』, 제91호, 2020.
- \_\_\_\_\_, 「메를로-퐁티 철학의 관점에서 본 기술과 몸」, 『철학논총』 제91호, 2018.
- \_\_\_\_\_, 「메를로-퐁티에 있어서 몸과 감정의 문제」, 『대동철학』80호, 2017.
- \_\_\_\_\_, 「메를로-퐁티에 있어서 시공간성과 주체성 그리고 신체」, 『철학논총』, 76호, 2014.
- 이영의, 「포스트휴먼 시대의 신인류와 초인」, 『철학사상문화』43호, 2023.
- 이종관, 「테크노퓨처리즘과 네오휴머니즘의 대결, 그리고 그 화해를 향하여」, 『현상학과 현대철학』제59호, 2013.
- 조광제, 「인간과 로봇의 의미소통 - 메를로 - 퐁티의 실존론적 - 변증법적 행동주의를 바탕으로-」, 『시대와 철학』16(4)호, 2005.
- \_\_\_\_\_, 「메를로-퐁티의 몸 철학 : 「지각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 2022.
- 정병화, 「공감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살’적 분석」, 『문화와 정치』7(4)호, 2020.
- 이형일,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 관점을 통한 장애인의 몸에 대한 고찰」, 『한국장애학회지』 6-2호, 2021.
- 이소희, 「후기 메를로 - 퐁티의 살의 존재론에서 본 세계」, 『현상학과 현대철학』, 40호, 2009.
- 천현순, 「새로운 몸, 이식된 정신 - SF 영화에 재현된 정신전송과 자아동일성 문제」, 『독어독문학』, 160호, 2021.

## 기타

- Singh, Tarsem 감독, 영화 <셀프/리스 self/less>, 2015.
- Phang, Jennifer 감독, 영화 <더 나은 선택 Advantageous>, 2015

## Abstract

## A Critical Reflection on Transhuman Mind-Uploading – with a Focus on the Theories of Merleau-Ponty

IM HEONSOO

*Sungkyunkwan University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Ph. D. Candidate*

The tradition of reason-centered Western philosophy, beginning with Plato, who emphasized rational thinking in his Idea, was followed by Enlightenment philosophers, including Descartes, who began to consider the mind and the body as separate.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the tradition of reason-centered thinking has grown stronger and continues to this day. Even in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is a strong cerebral centered thinking that situates the essence of our self in the brain (mind, reason), with the body understood as an instrument that performs the functions of the mind and thought to be replaceable. Against the backdrop of rapidly developing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this kind of brain-centered thinking has led to dreams of mind-uploading, and it is believed that technology will soon make it possible to turn this wish into a reality. But does our body truly function as an instrument? This instrumental view of the body in Western philosophy is criticized by Merleau-Ponty, who emphasizes subjective status of the body. This paper examines two films about

mind-uploading technology through the lens of Merleau-Ponty's body philosophy and argues that the body is not a tool, but a place that makes human existence possible.

---

**Keywords**

Body Phenomenology, Flesh Ontology, Posthuman, Self/Less, Intercorporeity

---



Copyright © 2024,  
Transmedia Institut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